

시즌6
제6차

Copyright © 2022 by All Rights Reserved. EBS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 ▽ 이감

[2021학년도 시준6 제6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20~25] 인문 융합(주제 통합형)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동서양의 논쟁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서양 철학 - 동물과 인간의 본성

아리스토텔레스, 영혼, 형상, 질료, 생육, 감각 지각, 욕구, 지성, 실천적 지성, 이론적 지성, 데카르트, 연장, 사유, 생리적 감각 지각, 의식적 감각 지각, 생물학적 인간관

인문 - 동양 철학 - 호락 논쟁

인물성동론, 인물성이론, 이간, 한원진, 본연지성, 기질지성, 리, 기, 성, 성즉리, 도덕적 본성, 기질, 오상, 천명

* (가) 지문 분석

문단1 : 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쟁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물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대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다루어져 왔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정체성이나 본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 그럴 것 같다. 인간이 동물과 딱히 다를 바 없다면[→ 인간만의 본성이 없다면] 동물 역시 인간과 버금가는 지위를 누려야 할 테고, 인간이 동물과 크게 다르다면[→ 인간만의 본성이 있다면] 동물은 당연히 인간보다 낮은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겠다.

문단2 :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1)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생명의 원리인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백락 짚기] 먼저 서양에서는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려나 보다. 그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한마디로 ‘영혼’의 존재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이 될 수 없다.

2) 그에 따르면 만물[→ 인간, 동물 등]은 질료와 형상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존재한다. 이때의 형상이란 그 존재의 목적이나 기능으로서의 본성으로, 인간과 동물은 모두 질료인 육체에 형상인 영혼[→ 생명의 원리]이 깃든 존재인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든 동물이든 질료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형상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영혼’과 ‘육체’를 함께 지닌다.

3)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생육(生育)(= 생물이 나서 길러짐), 감각 지각, 욕구, 지성으로 구분한다. 이들은 위계를 갖는데, ...

⇒ 영혼에 종류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기들끼리 위계까지 갖는단다. 당연히 ‘생육’보다는 ‘감각 지각’이, ‘감각 지각’보다는 ‘욕구’가, ‘욕구’보다는 ‘지성’의 위계가 더 높을 것 같다.

4) 식물은 생육만을 가지며 동물은 생육은 물론 감각 지각, 욕구, 실천적 지성까지 가진다.

⇒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겠다. 첫 번째,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영혼을 지니지만, 지니는 영혼의 종류는 각기 다르다. 두 번째, 지성에도 종류가 있다.

- 식물 : 생육
- 동물 : 생육, 감각 지각, 욕구, 실천적 지성

5) 실천적 지성은 가령 눈앞의 먹잇감에 대해 효과적인 사냥법을 선택할 때처럼 실천과 관련하여 발휘되는 지성을 말한다.

⇒ 사자가 눈앞의 토끼의 목덜미를 물어뜯을지, 아니면 다리를 물어뜯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사자가 ‘실천적 지성’을 영혼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6) 인간은 여기에 덧붙여[→ 생육, 감각 지각, 욕구, 실천적 이성은 물론이고] 세계에 대한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지성까지 담지(= 어떤 이론이나 사상 따위를 담음)하고 있다.

[주목]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은 모두 ‘영혼’을 지니고 있지만, 지니고 있는 ‘영혼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론적 지성’은 인간만이 지닌다는 점에서 인간만의 본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 식물 : 생육
- 동물 : 생육, 감각 지각, 욕구, 실천적 지성
- 인간 : 생육, 감각 지각, 욕구, 실천적 지성, 이론적 지성

7) 이러한 그의 목적론적 설명에 따르면 개체가 어떠한 형상을 지니는지에 따라[→ 어떤 종류의 영혼들을 갖는지에 따라] 그 개체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적인 활동이 결정된다.

[주목]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토리라는 생육을 영혼으로 갖기 때문에, 장차 참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징적인 활동’인 싹을 틔우고, 뿌리를 뻗어 나가는 활동들을 수행하게 된다. 같은 논리로 오직 인간만이 ‘이론적 지성’을 갖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참된 앎의 추구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도토리의 질료와 형상>



⇒ 이런 ‘특징적인 활동’들은 동물 안에서도 개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특정적이다. 예를 들어 사자와 토끼 모두 ‘실천적 지성’을 갖지만 5)의 상황에서 ‘토끼’는 오른쪽으로 도망갈지, 왼쪽으로 도망갈지 선택하는 식으로 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천적 지성’을 발휘할 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	‘영혼’에 따라 개체의 특징적인 활동이 결정됨
인간만의 본성	오직 인간만이 ‘이론적 지성’을 지님

문단3 : 데카르트의 설명

1) 이와 달리[→ 만물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데카르트는 육체와 영혼을 각기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체로 본다.

[백락 짚기] 문단2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데카르트’는 영혼과 육체를 별개의 실체로 보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다.

2) 물질은 길이, 폭, 부피와 같은 속성인 연장을 본질로 갖는 실체로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운동으로 설명되는 것이고, ...

⇒ ‘데카르트’가 이해한 ‘육체’에 대한 설명이겠다.

3) 영혼은 생명의 원리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틀렸고] 그 자체로서 사유라는 본질을 갖는, 즉 지성이라는 능력을 갖는 실체이다.

⇒ ‘데카르트’가 이해한 ‘영혼’에 대한 설명이겠다. ‘영혼’이 별개의

실체라는 사실은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새롭지 않지만 그 자체가 ‘지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은 새롭다. 한마디로 ‘영혼’을 가진 개체는 곧 ‘지성’을 갖춘 개체이기도 하다.

- 4) 데카르트에 따르면 지성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 지각**과 지성이 개입되는 감각 지각은 다르다.

[Rew] 문단2-3)의 ‘감각 지각’과 비교해야겠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감각 지각’을 일종의 ‘영혼’으로 이해했다면, ‘데카르트’는 ‘감각 지각’ 자체에 두 가지 종류[→ ‘영혼’이 개입하는 종류, ‘영혼’이 개입하지 않는 종류]가 있다고 이해했다.

- 5) 대상에서 반사되어 온 빛이 망막에 닿아 신경을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에 도달하는 것은 **생리적 감각 지각**으로 지성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다.
⇒ 마치 카메라의 렌즈에 상이 맺히고, 그 상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과정이 기계적이듯이, 위의 과정 역시 순전히 기계적이다. 따라서 ‘생리적 감각 지각’은 지성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 6) 인간은 그 대상의 표상(= 외부 세계의 대상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이 지성이 개입되는 **의식적 감각 지각**이다.
⇒ 반면 ‘의식적 감각 지각’은 기계적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성이 개입되는 감각 지각이겠다. 즉 인간은 지성을 갖춘 개체이다[→ 인간은 영혼을 지닌다.].

- 7) 그는 동물의 경우 생리적 감각 지각만을 가진다고 보고, ……

[주목] 중요하다. 따라서 ‘의식적 감각 지각’은 인간만의 본성이다.

- 8) …… ‘인간의 신체’가 물질의 운동만으로 설명되는 기계이듯이[→ ‘생리적 감각 지각’만으로 설명되는 실체이듯이] 동물은 영혼을 갖지 않는다[→ 지성을 갖추지 않은] 자동 기계일 뿐이라고 보았다.

⇒ ‘데카르트’에 따르면 영혼이 하나의 실체이듯이 육체 역시 하나의 실체이다. 따라서 동물은 영혼 없이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개체로, ‘의식적 감각 지각’을 갖지 않는다.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	육체라는 실체를 갖고 ‘생리적 감각 지각’을 가짐
인간만의 본성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갖기 때문에 ‘의식적 감각 지각’을 가짐

문단4 : 생물학적 인간관의 설명

- 1) 데카르트 이후 근대 과학의 발전에 기초하여 등장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은 물질적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와 달리 영혼을 고려하지 않고] 본성을 파악하는 생물학적 인간관에 가깝다. **생물학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차이가 없다.

[맥락 짚기] ‘생물학적 인간관’은 오늘날의 상식에 가장 잘 부합하는 관점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제외한다고 생각해 보자. 그 순간 동물이나 인간이나 딱히 다를 게 없어진다.

	인간만의 본성
아리스토텔레스	오직 인간만이 ‘이론적 지성’을 지님
데카르트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갖기 때문에 ‘의식적 감각 지각’을 가짐
생물학적 인간관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차이가 없음

- 2) 인간은 영리한 동물이지만[→ ‘영리’하지만] 고통을 느끼고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어쨌든 ‘동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이 보편화된 후에야 서양에서 동물의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 인간만의 본성이 없다는 것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인간에게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 (나) 지문 분석

문단1 :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

- 1)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호란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맥락 짚기] (가)에서는 서양에서의 논쟁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동양에서의 논쟁을 살펴보려나 보다.

- 2) 이때의 **본성**은 존재에 내재해 있는 이치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말한다.
⇒ 서양에서는 ‘본성’을 ‘생물학적 인간관’ 이전까지는 사실상 영혼으로 이해했다면 동양에서는 ‘본성’을 일종의 ‘이치’로 이해한 게다.

- 3) **다른 계열의 이간**은 인간과 동물은 우주의 궁극자인 천(天)의 명(命)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본성이 동일하며 본성의 내용도 오상[→ 만물을 이루는 원소들인 오행의 성질을 가리키는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으로서 동일하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제기하였다.

⇒ 아직까지는 ‘본성’과 ‘본성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인물성동론’의 주장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 4) **오상**이란 만물을 이루는 원소들인 오행의 성질을 가리키는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가리킨다.

[맥락 짚기] 어휘 풀이 정도의 진술이다.

- 5) 이와 달리 **호론 계열의 한원진**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천명[→ 우주의 궁극자인 천(天)의 명(命)]을 부여받았더라도 ……

[맥락 짚기] ‘이간’의 ‘인물성동론’과 충돌하는 새로운 관점의 등장이다. ‘한원진’ 역시 인간과 동물이 함께 천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

- 6) …… 그것이 각기 다른 물질적 특성인 **기질(氣質)**에 내재되면서 다른 특성을 띠게 되었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달라졌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제기하였다.

⇒ 한마디로 ‘인물성이론’은 천명이 동일하더라도 ‘기질’의 차이에 의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인물성동론’은 기질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얘기일까?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문단2 : ‘성즉리’에 대한 이간의 해석

- 1) 이러한 대답은 천명이자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서 만물의 이치인 **‘리’**에 대한 관점 차이에 기인한다.

[주목] 개념들 간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천명 = 본연지성 = 만물의 이치 = ‘리’

- 2) **이간**은 성리학의 **‘성즉리(性即理)’**라는 명제를, ‘성’은 곧 ‘리’와 같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명칭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실체는 같다는 것이다.

⇒ 쉽게 말해서 ‘이간’은 ‘성즉리’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얘기다.

<이간의 설명>

천명 = **본연지성** = 만물의 이치 = ‘리’ = ‘성’

- 3) 그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인간이나 동물을 포함한 만물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근원이자 도덕적 본성인 ‘리’를 말하는 것이고, ……

⇒ 2)에 따르면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연지성’**[→ 도덕적 본성]의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 4) …… **기질지성(氣質之性)**은 ‘리’와 물질인 **‘기’**가 합쳐져 이루어진 각각의 개체를 말한다. 다만 ‘기’, 즉 기질에 의해 본성[→ ‘본연지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할 때에 본성은 각각 다소 상이한 양태로 **외화(外化)**될 수 있다[→ ‘기질지성’은 달라질 수 있다.].

⇒ ‘본연지성’이 개체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인 이치라면, ‘기질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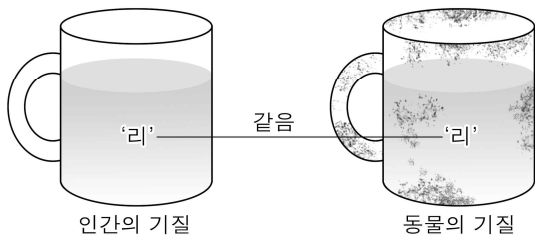
은 본연지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별 개체들로 이해하면 되겠다.

[Rew] 문단1-6)에서 ‘인물성이론’이 특히 주목한 대목이기도 하다. ‘인물성동론’ 역시 ‘기질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로 인해 본성이 다른 양태로 외화된다고 하여 ‘본성’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5) 인간과 동물, 성인(聖人)과 범인(凡人)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이다.

[주목] ‘인물성동론’ 역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문단1-1)에서 묻는 ‘본성’은 ‘도덕적 본성’으로서 ‘본연지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다’고 봐야 옳다는 얘기다.

⇒ 인간과 동물 사이는 물론이고 인간 안에서도 개체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질의 차이 때문이다. 비유하면 ‘인물성동론’의 주장은 대략 이런 식인 게다. “깨끗한 물[→ 도덕적 본성, ‘리’]이 깨끗한 컵[→ 인간의 기질] 대신 더러운 컵[→ 동물의 기질]에 담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깨끗한 컵에 담긴 물’이나 ‘더러운 컵에 담긴 물’이나 다르지 않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문단3 : ‘성즉리’에 대한 한원진의 해석

1) 한원진은 ‘성즉리’의 명제를 인정하지만 이를 ‘성’은 ‘리’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맥락 짚기] 문단2-1)에서도 설명했지만 결국 ‘성즉리’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인물성동론’과 ‘인물성이론’의 차이로 이어진 게다.

	‘성즉리’에 대한 해석
이간	‘성’은 곧 ‘리’와 같은 것
한원진	‘성’은 ‘리’로부터 유래한 것

2) 그에 의하면 각 존재의 본성은 ‘리’가 ‘기’에 내재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은 ‘기’에 내재해 있는 리라고 보아야 한다.

[주목] 중요하다. ‘이간’이 ‘성’을 ‘리’[→ 본연지성]로 이해한 것과 달리 ‘한원진’은 ‘성’을 ‘기’에 내재해 있는 리로 이해한 게다.

	‘성즉리’에 대한 해석	‘성’에 대한 해석
이간	‘성’은 곧 ‘리’와 같은 것	‘리’
한원진	‘성’은 ‘리’로부터 유래한 것	‘기’에 내재해 있는 리

3) 이렇게 보면 ‘성’은 ‘기’의 영향하에 놓여 있는 ‘리’[→ ‘기’에 내재해 있는 리]가 되어 ……

[맥락 짚기] 인간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같다는 것, 하지만 기질의 차이로 인해 ‘기질지성’[→ ‘기’에 ‘리’가 내재해 있는 개체]은 다르다는 것은 ‘이간’과 ‘한원진’ 모두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

4) …… 순수한 ‘리’인 도덕적 본성[→ ‘본연지성’, 이간의 ‘성’]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 …… ‘이간’이 순수한 ‘도덕적 본성’[→ ‘리’, ‘본연지성’] 자체가 곧 인간과 동물의 본성[→ ‘성’]이라고 주장했다면 ‘한원진’은 실제로 개체에 담겨 있는 ‘리’야말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라고 주장한 게다.

5) 결국 한원진의 ‘성’은 인간이 말하는 기질지성과 같은 것이므로, 인간과 동물의 같음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런 설명이겠다. 본성을 ‘기질지성’으로 본다면 인간과 동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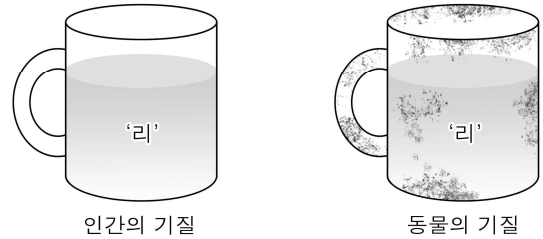
본성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한원진의 설명>

천명 = 본연지성 = 만물의 이치 = ‘리’ ≠ ‘성’

‘성’ = ‘기’에 내재해 있는 리 = 기질지성

[주목] 문단2-5)의 비유를 다시금 떠올리자면 ‘인물성이론’의 주장은 대략 이런 식인 게다. “깨끗한 물을 더러운 컵에 따르면 더 이상 처음처럼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 ‘리’는 ‘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러운 컵 때문에 물이 조금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게다. 따라서 ‘깨끗한 컵에 담긴 물’과 ‘더러운 컵에 담긴 물’은 분명 다르다[→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



문단4 : 본성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1) 인물성동론에서는 동물의 ‘성’도 오상[→ 본성의 내용]을 전부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이간은 오상을 ‘오행의 리’로 파악했는데, 우주의 어떤 사물도 오행[→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품수(= 선천적으로 타고남)하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오상을 품수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Rew] 문단1-3), 4)를 함께 떠올리면서 읽어야겠다. ‘인물성동론’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 ‘본연지성’]이 같다고 본 만큼 그 내용인 ‘오상’ 역시 같다고 주장하였ندا.

2) 다만 바르면서도 소통되는 기질[→ ‘깨끗한 컵’]을 지닌 인간과는 달리 동물은 기질이 치우치고 막혀 있기 때문에[→ ‘더러운 컵’] 오상이 모두 발현되지 않고 기껏해야 호랑이의 ‘인’이나 벌과 개미의 ‘의’ 등의 경우처럼 그중 하나를 발현할 수 있을 뿐이다.

⇒ 재밌는 해석이다. ‘오상’ 자체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전부 타고나지만 기질의 차이로 인해 동물의 경우 그중 일부만이 발현된다는 얘기다.

3) 반면 인물성이론에서는 동물의 ‘성’이 오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을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 반면 ‘인물성이론’의 경우 인간과 동물의 본성[→ ‘기질지성’]이 다르다고 본 만큼 그 내용인 ‘오상’ 역시 다르다고 본 게다.

4) 한원진은 인간만이 모든 오상을 얻고, 동물의 경우 애초부터 오상의 일부만 ‘성’으로 얻었다고 보았다.

⇒ 정리하면 이렇겠다.

		오상의 구비	오상의 발현
이간	인간	전부	전부
	동물		일부만
한원진	인간	전부	전부
	동물	일부만	일부만 [→ 구비한 전부]

5)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본성은 본래 다르다는 것이다.

⇒ ‘인물성이론’의 주장대로라면 당연한 결론이다.

[26~29] 과학 : 병원성 세균의 종류와 항생제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과학 - 생화학 - 세균

세균, 병원성 세균, 세균 감염증, 항생제, 세포질, 세포막, 세포벽, 아미노산, 펩티도글리칸,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세포 외막, 그람 염색법,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 베타 락탐 고리, 약리단, PBP, 베타 락타메이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 포린 단백질, 아미노글리코사이드, 확산, 능동 수송, 리보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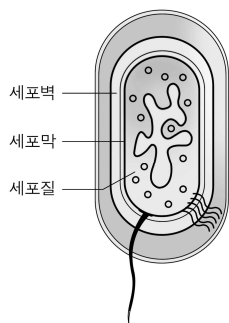
* 지문 분석

문단1 : 병원성 세균과 항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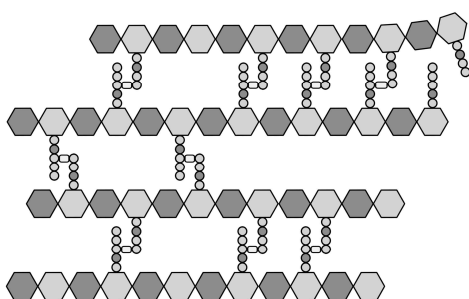
- 1) 단세포 생명체인 **세균**들 중 일부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지만, 대부분은 토양이나 공기 등의 **외부 환경**뿐 아니라 인체와 같은 **유기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존한다.
⇒ ‘세균’은 ‘단세포 생명체’에 속하고, 그중 일부는 ‘스스로 영양분을 합성하는 세균’에 속하고, 대부분은 ‘외부 환경이나 유기체로부터 영양분을 의존하는 세균’에 속한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나 유기체로부터 영양분을 의존하는 세균’인데 ……
- 2) 인체에 서식하는 세균들 중에는 비타민 K를 생성하거나 소화를 돕는 등 **인체**에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 **병원성 세균**들은 다양한 **세균 감염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다.
⇒ ‘병원성 세균’들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다.
- 3) 세균 감염증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사용되는데,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병원성 세균’이 ‘감염증’을 유발할 때 치료하는 약이 바로 ‘항생제’였다.

문단2 : 세균의 구조와 종류

- 1) 세균은 **세포질**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다시 **세포벽**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구조를 지니는데, ……
⇒ 이런 정도를 떠올려야겠다.



- 2) …… 세포벽의 주성분은 사슬 모양을 띤 **아미노산**들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 형태의 화합물인 **펩티도글리칸**이다.
⇒ 세균의 보호막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다시 ‘아미노산’들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다.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양새를 떠올리면 좋겠다.



- 3) 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세포벽**을 형성하는 방식에 따라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구분된다. **세포벽**의 90% 정도가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람 양성균**의 경우 **펩티도글리칸**들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두터운 세포벽**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한 층**의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얇은 세포벽**을 가지는 **그람 음성균**의 경우 세포벽 위에 **인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포 외막**이 덮여 있다.

⇒ 대충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된다. 핵심은 ‘그람 양성균’은 세포벽이 두껍고,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이 얇은 대신에 ‘세포 외막’을 갖는 데에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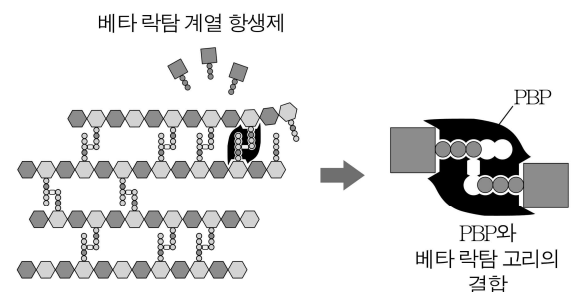


- 4) **그람 염색법**으로 세균을 염색했을 때에 **그람 양성균**이 보라색을, **그람 음성균**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차이**[→ 세포벽의 두께 및 세포 외막의 유무]에 기인한다.

[참고] 그람 염색법은 세균 염색법 중 하나인데, 염색법이 간편하며 원인균의 추측과 항생제의 선택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세균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중요한 염색법이다.

문단3 : 그람 양성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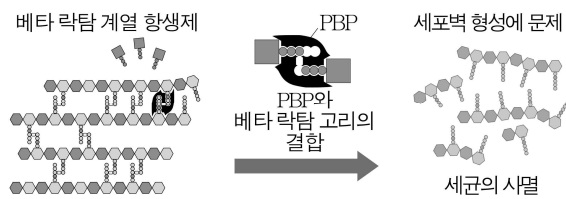
- 1) **그람 양성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항생제인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는 ……
[맥락 짚기] 세균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중 ‘그람 양성균’ 감염증 치료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는 얘기다.
- 2) …… **탄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고리** 모양을 이룬 ‘**베타 락탐 고리**’를 **약리단**[→ 다음 문장을 미리 가져오면, ‘화학 구조물에서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특정 부위’]으로 가진다.
⇒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에서 ‘베타 락탐 고리’가 약리 효과를 내는 부위라는 얘기다.
- 3) **약리단**은 화학 구조물에서 **약리**[→ 생체에 들어간 약품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 **효과**를 나타내는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맥락 짚기] 어휘 풀이 정도의 문장이다.
- 4)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를 투여하면 **그람 양성균**에서 **PBP**[→ 다음 문장을 미리 가져오면, ‘펩티도글리칸의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사슬들이 교차 결합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베타 락탐 고리**가 결합하여 **PBP가 불활성화**된다.
⇒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다.



- 5) **PBP**는 **펩티도글리칸**의 형성 과정에서 **아미노산 사슬**들이 **교차 결합**하는 데에 **관여**하는 효소이다.
[맥락 짚기] 어휘 풀이 정도의 문장이다.
[참고] ‘효소’는 생물체 안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에 대한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이다.
- 6) **PBP가 불활성화**되면[→ 4)] **세포벽 합성**이 **억제**되어 결국 세균이 사멸된다.

[Rew] 문단2-2)에서 세포벽의 주성분은 사슬 모양을 띤 아미노산

들이 그물처럼 엮여 있는 형태의 화합물인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했다. 이 ‘펩티도글리칸’ 형성과 관련된 PBP가 불활성화되면 세포벽 형성에 문제가 생겨 세균이 죽는다는 얘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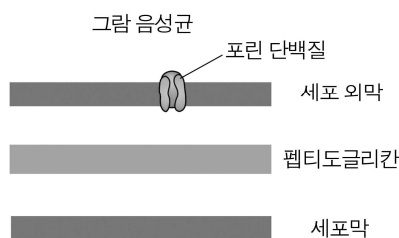


문단4 :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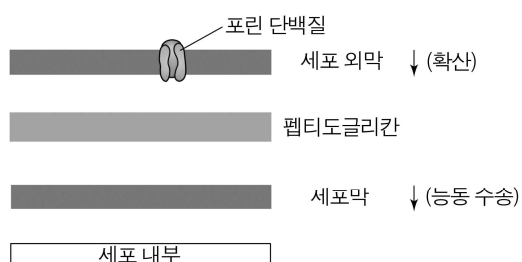
- 1) 인간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는 인체에 무해하다.
⇒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는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세포벽을 만들지 않는 인간의 세포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 2) 또한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대한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람 음성균 감염증에도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Rew] 문단2-3)에서 그람 양성균과 달리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 위에 ‘세포 외막’이 덮여 있다고 했다.
- 3) 최근에는 베타 락탐 계열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세균들이 증가하였는데, 이 세균들은 베타 락탐 분해 효소인 베타 락타메이스를 생성하여 베타 락탐 고리를 끊음으로써 항균(=균에 저항함) 효과를 억제한다.
⇒ 일부 세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항생제의 약리단을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역으로 생성해 내기도 한다는 얘기가. 무시무시하다.

문단5 : 그람 음성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

- 1) 한편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는 그람 음성균 감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는 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작은 분자들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인 포린 단백질이 있다.
[Rew]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다. 문단2-3)에서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 위에 세포 외막이 덮여 있다고 했다.
⇒ 이런 정도를 떠올릴 수 있겠다. 세포 외막에 ‘포린 단백질’이 통로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 2)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세포의 내외부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을 통해 포린 단백질을 통과하여 세포막에 도달한 뒤 세포막의 능동 수송 [→ 다음 문장을 미리 가져오면, ‘특정 물질을 그 농도와 무관하게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과정’]에 의해 세포 내부까지 이동한다.
⇒ 아미노글리코사이드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 3) 능동 수송은 특정 물질을 그 농도와 무관하게 [→ 농도 차이에 의존하는 확산과 달리]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확산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과정이다.

[맥락 짚기] 어휘 풀이 정도의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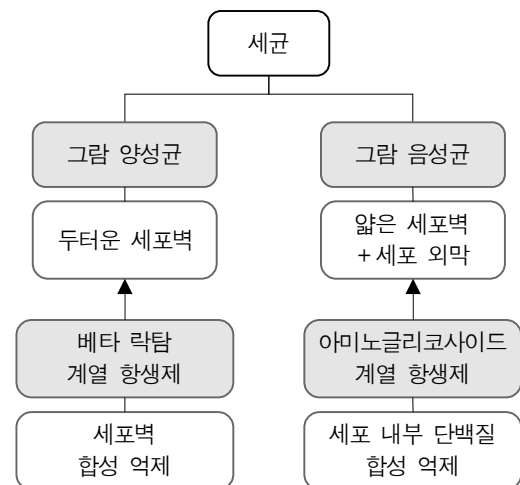
- 4)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세포 내부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하는 리보솜과 결합함으로써 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

⇒ ‘리보솜’의 기능[→ 세포 내부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그람 음성균 감염증’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 5) 다만 아미노글리코사이드는 종종 환자의 청각계를 손상시키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조심하자.

[맥락 짚기] 마지막으로 세균의 종류와 그에 맞는 항생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30~34] 고전시가 : (가)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달마다 해야 할 농사일과 절기, 풍속, 예법 등을 다양하게 노래하는 가운데 농사에 힘쓸 것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사람다운 도리를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월령’은 다른 달보다 특히 분량이 긴데, 이는 한해 농사를 끝낸 뒤에 겨우살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제시한 후에 강신(講信)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규범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장(洞長)’이 나서서 ‘마을 법’을 상기시키는 것은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것과 마을 공동체의 지속, 나아가 국가 체제의 안정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농사를 권장하는 노래에 윤리적 교화가 담기게 된 것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다.

* 수록 지문 분석

토막1 : 시월의 계절적 배경과 절기

시월은 초겨울이라 입동(立冬,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11월 8일 무렵. 이때부터 겨울이 시작된다고 함), 소설(小雪, 24절기의 하나로 양력 11월 22일 무렵. 이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함) 절기(=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로다

→ [음력] 시월은 초겨울이니, 절기로는 입동과 소설이 있네.

⇒ 시월의 계절적 배경을 언급하며 이 달에 속한 절기를 거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매 월령의 첫 행에서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나뭇잎 떨어지고 고니(= 가을에 한국에 날아와 겨울을 보내는 오릿과의 물새) 소리 높이 난다

→ 나뭇잎 떨어지고 고니 소리쳐 울며 높이 난다.

⇒ 초겨울이 되니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려는 철새가 날아드는 거다. 계절감을 느끼게 한다.

든거라 아이들아 농공(農功, 농사일)을 마쳤도다

→ 든거라, 아이들아, 농사일을 마쳤구나.

⇒ 화자는 ‘아이들’을 청자로 내세워, 한해 농사일을 마쳤음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부려선 안 된다며, 이 구절 바로 뒤에 ‘집안일 마저 하세’라는 말로 겨울을 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착실히 해 두어야 한다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다.

(중략)

토막2 : 강신날 준비와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

우리 집 부녀(婦女)들아 겨울옷 지었느냐

술 빙고 떡 하여라 강신(講信, 향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신의를 새롭게 다지던 행사)날 가까웠네

⇒ 화자는 집안의 ‘부녀들’을 향해 ‘겨울옷’ 짓기부터 술 빙고 떡 하면서 ‘강신날’을 제대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꿀 따서 단자(團子, 곡식 가루를 둥글게 빚어서 꿀과 잣가루 등의 고물을 묻힌 떡) 하고 메밀 빵아 국수 하고

→ 꿀을 따서 단자를 빙고 메밀 빵아 국수 만들고

소 잡고 돌(= 돼지) 잡으니 음식이 풍비(豐備, 풍성하게 갖추)하다

→ 소 잡고 돼지 잡으니 음식이 풍성하다.

⇒ ‘강신날’ 행사를 치르기 위해 다양한 음식들을 풍성하게 차린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들 마당에 차일(遮日,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포장) 치고 동네 모아 자리 깔고

→ 들 마당에 포장 치고 동네 [사람들] 모아 자리 깔아 [앉게 하고] 노소(老少, 늙은이와 젊은이) 차례 틀릴세라 남녀 분별 각각 하소

→ 늙은이와 젊은이 순서 틀릴까 [주의하고] 남녀 각각 따로 나누어 [앉게] 하소.

⇒ 강신날 행사에 오는 사람들을 남녀노소에 따라 자리를 저마다 따로 구분해 앉게 해야 한다는 거다. 자리 배치 과정에서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염려하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겠다.

악공(樂工,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한 패 얻어 오니 놀이 패가 한 무리라
북 치고 피리 부니 여민락(與民樂, 임금의 거동 때나 궁중 잔치에 쓰이던 아악곡)이 제법이라

⇒ ‘여민락’은 임금의 거동 때나 궁중 잔치에 쓰이던 아악곡(雅樂曲)을 말하는데,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뒤로 여러 변형을 겪으며 아주 다른 ‘여민락’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여기서의 ‘여민락’은 민간에서 연주하는 음악이니 당연히 궁중에서 연주되던 것과 똑같은 수는 없겠다. ‘여민락’이라는 이름이 본래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 말은 ‘백성들이 더불어 즐기는 음악’쯤으로 풀이해도 좋을 듯하다.

이 풍헌[→ 고을에서 지방 수령을 보좌하던 사람이겠다.] 김 첨지[→ 나이 많은 사람을 부담 없이 가볍게 부르는 말]는 잔말(=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게 늘어놓는 말) 끝에 취해 눕고

⇒ ‘이 풍헌’과 ‘김 첨지’는 술에 취해 이런저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다가 끝내 쓰러져 잔다.

최 권농[→ 고을에서 농사를 장려하던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강 약정[→ 향약에서 수령을 보조하는 일을 맡던 향약 조직의 임원]은 꼭두각시 춤을 춘다

⇒ ‘최 권농’과 ‘강 약정’ 또한 술에 취해 들뜬 마음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 춤을 춘다. 이들 네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 나름의 지위와 역할도 있고 나이도 이미 웬만큼 든 인물일 텐데, 마을 공동체의 행사에 참여해서는 한껏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 한해 농사를 끝낸 뒤, 향촌 사회의 풍족하고도 흥겨운, 여유로우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다.

토막3 : 동장이 권면하는 말씀

술잔을 올릴 적에 동장(洞長, 한 동네의 우두머리)님 상좌(上座, 윗사람이 앉는 자리에 앉음)하여

→ [동장에게] 술잔을 올릴 때에 동장님 윗자리에 앉아

잔 받고 하는 말이 자세히 들어 보소

→ [동장님이] 잔을 받고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 보소.

⇒ ‘동장님’이 강신날 행사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에게 이른바 ‘한 말씀’ 하시는 거다.

어와 오늘 놀음 이 놀음이 뉘 덕인고

→ 아아, 오늘 놀이, 이 놀이가 뉘 덕인고?

천은(天恩)도 그치었고[→ 끝이나 한량이 없음] 국은(國恩)도 망극하다[→ 임금이나 아버지의 은혜가 한이 없다.]

→ 하늘의 은혜도 그치었고, 나라님의 은혜도 한이 없다.

⇒ 한해 농사의 풍성함을 ‘천은’과 ‘국은’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미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교화의 의도가 엿보인다.

다행히 풍년 만나 춤과 주림[→ 굶주림] 면하도다

향약(鄉約,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은 못 하여도 마을 법이 없을쏘냐

→ 향약은 못 만들어도 마을[에서 대대로 전하는] 법이 없을쏘냐?

⇒ 조선 초기에 향약은 임금에 따라 설치를 권장하던 때도 있었고 폐지를 주장하던 때도 있었다 한다. 신하들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향약에 찬성하기도 반대하기도 했다 한다.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향약 설치가 그 지역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랐다고 한다. 이 구절에서 ‘향약은 못 하여도’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마을 법’은 ‘향약’을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규정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효제충신(孝悌忠信,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의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 사이의 믿음을 통틀어 이르는 말) 대강 알아 도리를 잃지 마소
 사람의 자식 되어 부모 은혜 모를쏘나
 자식을 길러 보면 그제야 깨달으니
 → 자식을 길러 보면 [‘부모 은혜’를] 그제야 깨달을 테니
 ⇒ ‘사람의 자식’된 이들, 곧 젊은이들을 향해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겠다.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우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길러 내어 남혼여가(男婚女嫁, 아들은 장가들이고 딸은 시집보냄) 마치면
 → 온갖 고생으로 길러 내어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나면
 제각각 몸만 알아 부모 봉양 잊을쏘나
 → 제각각 [자기] 몸만 알아서 부모 봉양을 잊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 고생하면서 길러 내어 자식을 시집, 장가를 보내고 났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 봉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기운이 쇠패(衰敗, 늙어서 기력이 약해짐)하면 바라느니 젊음이라
 ⇒ 늙어 기력이 약해지면 누구나 젊음을 바라게 된다는 거다.

의복 음식 잡자리를 각별히 살피 드려
 행여나 병나실까 밤낮으로 잊지 마소
 → 자식들에게 부모 봉양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예시하고 있다.

고까우신[→ 섭섭하고 야속하여 마음이 언짢은] 마음으로 걱정을 하실 적에
 → [부모님이] 언짢은 마음에 [자식] 걱정을 하실 때에
 군소리(=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로 대답 말고 화기(和氣, 온화한 기색)로 풀어내소
 → 군소리로 대답 말고 온화한 얼굴로 [부모 마음] 풀어내소.
 ⇒ 부모님께서 자식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언짢은 마음으로 걱정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을 잘 살피 온화한 태도로 풀어 드리라는 당부이다.

들어오는 지어미는 남편의 거동 보아
 그대로 본을 뜨니 보는 데 조심하소
 ⇒ ‘지어미’ 앞에서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남편’ 되는 사람에게 당부하는 거다.

형제는 한 기운이 두 몸에 나뉘으니
 귀중하고 사랑함이 부모의 다음이라
 간격 없이 한통치고[→ 나누지 아니하고 한곳에 함침] 네 것 내 것 계산 마소
 ⇒ 형제끼리는 서로 힘을 합치고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네 것 내 것 따지지 말라는 거다.

남남끼리 모인 동서(同聲)[→ 며느리들, 또는 사위들 사이에서 서로를 일컫는 말이다.] 틈나서 하는 말을
 → 서로 남남인 사이에 모여서 된 것이 동서 간이니 가끔씩 [괜히 안 좋게] 하는 말[이 있더라도]
 귀에 담아 듣지 마소 자연히 귀중하리
 → 귀에 담아 듣지 마소, 자연히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며 대하게 되리.
 ⇒ 동서들은 원래 남남으로 시작한 사이니 만큼 가끔씩 듣기 불편한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패념치 말고 못 들은 척하라는 거다.
 그런 걸 그냥 흘려 넘기면 서로 소중히 대하는 관계가 틀어질 일이 없다는 말이겠다. 여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설교다.

처신에 먼저 할 일 공순(恭順, 공손하고 온순함)이 제일이라
 → 처신에서 공손하고 온순함이 제일이라.
 내 늙은이 공경할 제 남의 어른 다를쏘나

→ 내 집안 어른[→ 부모]을 공경할 때, 남의 집 어른이라고 다르겠느냐.

⇒ 우리 집안 어른뿐만 아니라, 남의 집 어른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이겠다. ‘동장님’은 이제 가족과 친족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말씀을 조심하여 인사(人事,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언행)를 잃지 마소
 하물며 상하 분의(上下分義,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각자 자기 분수에 알맞은 행해야 할 도리) 준비(= 지위나 신분이 높거나 낮음)가 현격(= 차이가 매우 심함)하다
 → 하물며 상하(上下)가 행해야 할 도리와 준비가 큰 차이가 있다.
 ⇒ 윗사람과 아랫사람,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자신의 처한 형편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에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거다. 그러니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자신의 도리를 잘 따라야 한다는 거다.

내 도리 극진[→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있음]하면 죄책(罪責,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아니 보리
 → 내가 정성을 다해 도리를 따른다면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을 일이 없으리라.

임금의 백성 되어 은덕으로 살아가니
 거미 같은 우리 백성 무엇으로 갚아 볼꼬
 일 년의 환자(還子) 신역(身役)[→ 꾸어 쓴 관청의 곡식을 갚고 군역과 부역을 내는 일] 그 무엇 많다 할꼬
 ⇒ 관청으로부터 봄에 꾸어 곡식을 가을에 이자를 쳐서 갚는 환자나 군역과 부역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말인데, 당연히 이는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 백성의 관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보다는 당연히 사대부 작가의 관점이 직접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백성이 환자를 잘 갚고 나라에 진 의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겠다.

기한 전에 필납함[→ 납부를 마침]이 분의(分義, 자기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에 마땅하다
 ⇒ 환자를 갚고 신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임금의 은덕을 갚는 구체적인 실천인 거다.

[35~37] 현대시 : (가) 정지용, 「바다 2」

* 작품 평가

정지용 시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적 언어로 표현하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그러한 시 세계가 ‘바다’의 형상을 붙잡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에 주의하며 바다를 상상하면서 읽어 보자.

* 작품 분석

제1연~제3연 : 파도의 모습

바다는 뿔뿔이
달아날라고[→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처럼[→ 직유법]

재재발렸다.[→ 재치 있고 몹시 빠르다는 거다. 원래 ‘재재바르다’는 재잘재잘 수다스러워 어수선하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느낌이 있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도마뱀 떼처럼’과 함께 쓰여서 ‘빠르게 달아난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즉 푸른 바닷물이 빠르게 밀려 나가는 모습을 도마뱀에 빗대어 형상화한 것이다.]

꼬리가 이루(= 여간하여서는 도저히)

잡히지 않았다.

- 1) ‘바다’를 뒤따라가며 붙잡으려는 화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꼬리’는 바다 쪽으로 밀려가는 파도의 끝자락 정도가 될 것이고, 화자는 그 끝자락을 쫓아 바다로 나아가지만 바다 전체를 도저히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 2) ‘바다’를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보면 바다를 붙잡으려고 하는 화자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연~제6연 : 해안의 모습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상처]!

- 1) ‘흰 발톱’은 파도가 부서지며 나타나는 하얀 포말을 말하고, 그 발톱에 찢긴 ‘생채기’는 해안의 갯바위에 난 패인 자국 같은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파도가 몰아친 후 드러나는 검붉은 갯바위의 패인 자국에서 도마뱀의 발톱에 찢긴 상처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 2) ‘슬픈’이라는 시어에는 그렇게 패인 자국에 투사된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닷물이 찢겨 내린 갯바위의 틈에 ‘바다’를 붙잡지 못한 화자의 상실과 슬픔을 투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가까스루 몰아다 붙이고

변죽[→ 가장자리. 테두리]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 1) 무엇을 ‘몰아다 붙이’었을까? 제3연에서 대상을 ‘잡으려고 한 행위’가 화자의 행위라고 본다면, ‘몰아다 붙이고’는 화자의 행위이며 그 대상은 ‘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그렇다면, 화자는 잡히지 않는 바다를 간신히 붙잡아서 몰아다 붙이고 가장자리를 둘러 손질했다는 말이다. 화자를 시인으로 본다면 이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시적 표현으로 다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 한편, 이는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왔다가 물기가 빠져나가는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면 ‘변죽’은 바닷물이 물에 올랐다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자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엘슨[→ 애를 쓴] 해도(海圖)에

손을 씻고 떼었다.

- 1) 이 연 역시 ‘애를 쓴’ 것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제3연의 ‘꼬리’를 ‘잡으려는 화자’가 제5연에서 바다를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한 주체라면 ‘애를 쓴’것은 화자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도’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놓은 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그렇게 본다면 ‘손을 씻고 떼었다’는 것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 3) 만일 ‘애를 쓴’ 행위의 주체를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해도’는 해안가에 남은 파도의 흔적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손을 씻고 떼었다’는 해안가에서 멀어지는 파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해도’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제7연~제8연 : 바다의 모습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굴르도록

- 1) ‘찰찰’과 ‘돌돌’이라는 의태어는 경쾌한 이미지를 준다. 바닷물의 움직임을 경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 2) ‘해도’를 만든 주체가 화자라고 한다면 제7연의 의미는 보다 선명해진다. 화자가 ‘해도’에 애를 쓴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즉, 화자가 바다를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은 생동감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바닷물을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면 제7연은 바닷물이 해안가의 자갈이나 돌 따위를 굴리면서 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다.

회동그라니[→ 랩시나 모양이 가쁜하게] 받쳐 들었다!

지구는 연잎[→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말줄임표는 이 오므라들고 펴는 일이 계속 반복됨을 나타낸다.]

- 1) ‘받쳐’ 든 행위의 주체를 화자로 보면 ‘회동그라니’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표현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절제미와 세련미를 추구했던 정지용 시인의 작품 세계와도 통한다.
- 2) 바닷물을 행위의 주체라고 본다면 ‘회동그라니 받쳐’ 든 모습은 바닷물이 물을 둘러싼 풍경을 원경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받쳐’ 든 행위의 주체를 무엇으로 보든, 마지막 행은 그 예술 작품이나 해안가의 아름다움을 지구 전체로, 즉 자연 전체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4) 따라서, 마지막 행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풍경이나 그 풍경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보며 화자가 상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화자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지구 전체를 마치 연꽃의 잎이 열리고 닫히는 듯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 5) 이렇게 본다면 제8연은 간결하게 압축된 표현을 통해[→ ‘회동그라니 받쳐 들었다’] 자연[→ ‘지구’]이 가진 아름다움의 본질과 정수를 나타내려는 시인의 기대감이 담긴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

이 시는, 바다의 아름다움을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을 통해 아름답게 형상화하려는 시인의 시도와, 그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명력 있게 표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8~42] 사회 : 루만의 체계 이론과 인권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사회학 - 인권, 사회 체계 이론

인권, 루만, 전통적 사회 이론, 소통, 체계, 계층 체계, 기능 체계, 2차적 배제, 증폭 효과

* 지문 분석

문단1 : 기존의 인권 개념에 대한 루만의 비판

- 1) 인권(人權)은 개별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 여겨져 왔다.
⇒ ‘인권’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다. “왜 개별 인간은 인권을 갖는데?”라는 질문에 “인간이니까?”라는 대답이 당연히 되어 왔다는 얘기가.
- 2) 설혹 그것[→ 인권]이 천부적인(= 태어날 때부터 지닌) 것[→ 자연법에 의해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의해 부여된 것[→ 현실의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 여기는 입장에서조차 인권은 개개인에 귀속된 것[→ 개별 인간이라면 누구든 갖는 것]이라 본다.
⇒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든,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든 상관없이 인권이란 개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게다.
[참고] 법은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실정법’이 개별 국가에 의해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 한다면 ‘자연법’이란 이성에 근거를 둔,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이다.
- 3) 그런데 루만에 따르면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식의 막연한 당위에서 벗어나
⇒ ‘인간이 왜 존중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라는 식의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 4) 인간이 인권을 담지하고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인간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의 그 자체에 대한 관찰 가능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문단2 : 루만의 주장

- 1) 사회 변화의 주체를 인간이라 보아 인간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전통적 사회 이론과 달리, 루만은 사회 분석에 있어 [사회 변화의 주체를 인간이라 보지 않기]에 인간을 배제한다.
⇒ 인간을 사회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니?
- 2) 인간의 의식은 관찰될 수 없고[→ 인간의 의식은 다른 사람이 봐도 모르고] 개인이 자신의 의도조차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스스로조차 모르는 것이어서], 그[→ 루만]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 관찰될 수 있는 것]인 ‘소통’을, 그리고 소통으로 구성된 사회 ‘체계’만을 사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 루만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과 ‘체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게다.
- 3)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소통, 작품을 공개하고 감상하며 비평하는 예술적 소통, 토론이나 투표에 참여하는 정치적 소통 등이 그것[→ ‘소통’과 그로 구성된 사회 ‘체계’]이다.
⇒ 그렇단다. 다양한 체계가 존재한다.
[참조] 이는 사회적 기능에 기반을 둔 체계 구분이다. 예컨대 물건을 사고파는 개별 ‘소통’들이 모여서 ‘경제 체계’를 구성한다. ‘루만’에 따르면 이 기능 체계들은 위계 없이 평등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각자의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회를 소통과 체계로 분석한 루만의 이론을 ‘사회 체계 이론’이라고 한다.

문단3 : 근대 사회의 도래와 인권의 필요성

- 1) 이러한 관점[→ 사회가 체계로 분화되어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루만은 개인이 다양한 체계에 모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인이 경제적, 예술적, 정치적 소통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가 곧 인권이라고 주장하였다.

- ⇒ 인권에 대한 루만의 새로운 정의가 되겠다. 개별 인간이 모든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권’이 곧 인권이라는 얘기가.
- 2) 그[→ 루만의 주장]에 따르면 인권은 근대 이후의 역사적 산물 [→ 시대적 변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 근대 이전에는 인권이 왜 불필요했는지, 근대 이후에는 왜 필요해졌는지가 핵심이겠다.
 - 3) 전(前)근대 사회에서는 체계의 계층적 분화가 지배적이어서[→ 사회가 계층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서], ...
⇒ 쉽게 말해 근대 이전에는 신분 제도에 의해 모든 인간의 지위가 결정되었다는 얘기가.
 - 4) 농노이든 귀족이든 각 신분에 따른 계층 체계에서의 소통[→ 각 신분에게 허가된 소통]만 할 수 있었다.
⇒ 농노의 ‘정치적 소통’이 제한되었던 것처럼, 전근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신분에 맞는 소통만 가능했다는 게다.
[주목] ‘루만’에 따르면 전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계층 체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이 포함된 계층에 허가된 소통만을 할 수 있도록 억압받았으나, 동시에 체계 내부에 소속됨으로써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 5)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개인들은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난[→ 계층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에 허가되지 않았던 소통도 가능해진] 반면, 계층 체계에서 누렸던 안정과 보호를 상실[→ 계층 체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안정된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다.
[맥락 짚기] ‘신분제 폐지’야말로 전(前)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차이점이었다.
⇒ ‘울타리’[→ 신분의 속박]는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울타리 안에 한해서는 안정과 보호를 보장하기도 한다. 울타리 밖으로 내몰린 개인들[→ 근대 이후의 개인들]은 자유와 불안정을 동시에 누리게 된 게다.
 - 6) 그리고 계층 체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신분 제도가 철폐되면서] 정치, 교육, 예술 등 체계의 기능적 분화가 더 지배적인 상태[→ 문단 2-3)의 언급을 떠올리자.]가 되었다.
⇒ 근대에 신분 제도가 철폐된 이후에는 ‘계층 체계’는 사라지고 기능적 분화[→ 기능 체계]가 부각되었단다.
[주목] 근대 이전에는 ‘기능적 분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계층적 분화가 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었다는 얘기가.
 - 7) 그 결과 체계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가 요청[→ 인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계층 체계가 사라짐에 따라 기능 체계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입장권’이 필요해졌다는 거다.
[맥락 짚기] ‘전(前)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겠다.

전근대 사회	근대 사회
계층 체계	기능 체계 [→ 계층 체계 사라짐]
각 계층마다 허가된 소통만 가능 [→ 인권 필요 X]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인권]가 필요해짐

문단4 : 근대 사회의 거대한 배제

- 1) 근대의 인간은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통해 모든 기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형식적 자유]가 주어짐에 따라 안정과 보호를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자유가 실현되고 있는지

[→ 실질적 자유]는 별개의 문제이다.

⇒ ‘인권’의 도입으로 표면상으로는 개인들이 모든 소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 루만에 따르면 참여가 [형식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어도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2차적 배제’**가 나타나곤 한다.

⇒ 기능 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인권’인데,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기능 체계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2차적 배제’라고 불렀나 보다.

3)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이가 투표할 여유조차 없어서 정치적 소통에의 참여에서 배제되는 경우,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살아서 법적 소통에 배제되는 경우 등이 인[→ ‘2차적 배제’]에 해당한다.

⇒ 이처럼 실제 사회에서는 경제적 혹은 지역적 조건이 불충분하여 기능 체계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다.

[참조] ‘입장권’이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맞지만 [→ ‘인권’이 다양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지만], 놀이공원을 전부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공원에 들어가서도 놀이기구를 즐길 수 없을 테고, 공원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입장권이 있어도 놀이공원 방문이 불가능할 테니 말이다.

4) 2차적 배제는 보통 **중폭 효과**로 인해 점차 다른 기능 체계에까지 배제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 극도의 빈곤으로 ‘경제적 소통’에서 배제된 개인이 정치적 소통, 예술적 소통 등에서도 배제되는 양상을 떠올리면 되겠다.

5)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2차적 배제와 중폭 효과가 보다 극심하게 나타난다. 국가에 의해서만 인권 배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기업** 등과 관련한 사적 영역에서도 착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제3 세계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개발 도상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세계적 소통에 참여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이 다양해졌다는 얘기다. 예컨대, 다국적 제약 회사가 불치병 치료약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환자들이 약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를 떠올리면 되겠다.

6) 루만은 이처럼 기능적 분화에 기초한 근대 사회에서 **원리상으로는 소통에의 보편적 참여를 보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배제’를 낳았**다고 보았다.

⇒ 근대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인권을 통해 보편적 참여를 보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거대한 배제’를 낳았다는 얘기다.

문단5 : 루만의 해결책

1) 루만의 분석을 따라가면 인권 문제는 결국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개별 주체들의 잘못된 행위에 기인하는 것[→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이라기보다 **실질적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상태**[→ 개인의 의미 있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권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구조적 상태’다. 사회를 구성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책임을 묻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 세계화 시대에 더욱 심화된, 경제 체계의 경쟁 논리가 다른 체계의 특성과 결합하여 왜곡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그 체계 고유의 소통을 해치는 것**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 체계들 중 몇몇 체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져 다른 체계의 소통 방식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인권 문제의 두 번째 원인이라는 게다. 다국적 제약 회사와 불치병 치료약의 경우, 경제 체계의 경쟁 논리가 비대해져 의료 체계의 소통을 해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3) 진리를 탐구하려는 과학 고유의 소통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경제

체계의] 경쟁 논리와 결부되었을 때 그 결과가 왜곡될[→ 과학 체계 고유의 소통이 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 그렇다.

4) 루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피해를 받는 소통의 당사자들이 해당 체계의 소통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 예를 들어 경제적 이유로 정치적 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 체계가 경쟁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 예를 들어 과학 체계가 경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 똑바로 하자는 얘기다.